

# 태음인의 빈용 처방에 대하여

- 열다한소탕, 청심연자탕, 청폐사간탕, 태음조위탕 -

박 지 우



사상처방을 써본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열다한소탕을 써야 할 사람에게 청심연자탕을 지어주거나 청폐사간탕을 써야 할 사람에게 열다한소탕을 써서 약을 다시 지어주는 수모를 종종 겪는다.

이런 일은 사상을 하는 사람이면 한 두번은 당해 보았을 것이다.

## 1. 체질과 처방의 감별

맥진 문진 관형찰색으로 정확히 처방을 가려내는 것이 꿈이지만 영원한 초보자에겐 꿈같은 바램이다

그래서 파우치에 포장한 열다한소탕 청심연자탕 청폐사간탕 액을 손에 쥐어 보게 하여 처방을 가리는 방법을 착안하게 되었는데 이 결과 약 80%는 몸에 맞는 처방을 즉시 찾아낼 수 있었다.

즉 탕액을 손에 쥐게 했을 때 몸에 맞으면, 통증이 없어지고 눈이 밝아지고 머리가 산뜻해지는 등의 긍정반응이 나타나고, 몸에 맞지 않으면 눈이 흐려지고 몸이 무거워지며 불쾌해지는 등의 부정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방법도 환자가 간혹 열다한소탕증에서 금세 청심연자탕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 간혹 오진이 있을 때도 있다

또한 아무 반응을 느끼지 못하는 20%정도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으며 이 방법을 병행한 이후로 그전보다 처방선택을 틀리게 하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사상방을 쓰시는 분들에 따라 그 처방 운용의 방식이 각기 다르고 나름의 견해가 있을 터인데, 필자의 경우는 원방에 체질에 맞는 약을 증세에 맞춰 가미하여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험상으로 봤을 때 원방만을 썼을 때보다 치료기간이 단축되고 재발의 빈도수가 적

었기 때문이다.

## 2. 열다한소탕에 대하여

필자가 태음인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처방으로 태음인 처방중 약 60%를 차지한다.

열다한소탕은 태음인 환자가 대체로

- ① 더위를 많이 탄다.
- ② 찬것을 좋아한다.
- ③ 발이 뜨거워 양말 벗기 좋아한다.
- ④ 이불로 발을 덮기를 싫어한다.
- ⑤ 성격이 간간하다.
- ⑥ 얼굴 표정이 밝고 성격이 비교적 직선적이다.
- ⑦ 입안과 혀가 잘 헐다.
- ⑧ 몸의 일부분이 뜨겁게 느껴진다.

등의 특징이 있을 때 응용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도 많아 추위를 몹시 타고 수족이 차가워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다.

## 3. 청심연자탕에 대하여

태음인 처방중 약 30% 이상 차지하는데,

- ① 환자가 추위를 많이 탄다.
- ② 발은 이불로 덮어야 잠이 온다.
- ③ 성격이 유순한 편이다.
- ④ 얼굴 표정이 순해 보인다.
- ⑤ 얼굴에 살이 많이있어 물러 보인다.
- ⑥ 어린아이는 얼굴색이 검고 어둡다.

등의 특징이 있을 때 응용하고 있는데, 간혹 더위를 많이 타고 화가 많은 청심연자탕 증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 4. 청폐사간탕에 대하여

세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처방이며 확실한 실증에 사용한다

청폐사간탕증이 아닌 것 같아서 열다한소탕을 써도 잘 안듣고 청심연자탕을 써도 잘

## ■ 태음인의 빈용 처방에 대하여

안들을 때 대부분 청폐사간탕을 쓰면 기가 막히게 듣는다.

- ① 환자가 체격과 뼈대가 크다.
  - ② 얼굴이 붉은 사람이 많다.
  - ③ 염증이 있으면 색깔이 붉다.
  - ④ 체격은 아주 작지만 성격이 매우 치밀하다.
  - ⑤ 스트레스에 너무 강한 반응을 보인다.
  - ⑥ 주걱턱이거나 광대뼈가 많이 튀어 나왔다.
  - ⑦ 피부와 얼굴색이 은은하게 까맣다.
  - ⑧ 변비가 아주 심하다.(단 변비가 없는 사람도 있다)
- 등의 특징이 있을 때 응용하고 있다.

## 5. 태음조위탕

사상방을 처음으로 쓸 때 태음조위탕을 많이 써보았으나 나의 경우는 잘 맞지 않아 혼이 난 경험이 많다.

그래서 처방중 마황을 빼고 써보면 부작용이 전혀 나지 않았으며 몇몇 사상하는 교수들도 그런 편법을 쓰는 것을 보았다

나의 경험으로는 마황이 맞지 않으면 태음조위탕, 조위속명탕, 조위승청탕증이 아니니 다른 처방을 선택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황이 잘 맞는다고 하여도 위의 세처방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 경우 역시 많다.

열다한소탕, 청심연자탕, 청폐사간탕에는 마황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마황을 넣어야만 할 때가 많다.

마황을 가미해야 할 때에 넣지 않으면 치료가 잘 안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6. 마황테스트

마황을 한움큼 손으로 쥐고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반응이 온다.

이때 통증이 없어지거나 눈이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막힌 코가 시원하게 뚫리면 마황을 넣고 반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눈이 아물거리고, 불쾌감이 오면 마황을 넣지 않는다.

오십견으로 팔을 들지 못하는 사람이 마황을 손에 올려놓고 있으면 즉시 팔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 손에 쥐기만해도 전기에 감전됐을 때 처럼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고, 머리가 무거워져서 한시간이 지나도 원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

마황은 태음인에게는 참으로 좋은 약이며 동시에 독한 약이기도 하다. 오링 테스트도 마황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 7. 처방선택이 틀렸을 때

- (1) 열다한소탕을 복용하고 변비가 심해지면 → 청폐사간탕으로 바꿔본다
- (2) 열다한소탕을 복용하고
  - ① 소화가 안되고 설사나고
  - ② 구역질나고
  - ③ 몸이 많이 추워지고
  - ④ 갈증이 심하게 나면 → 청심연자탕으로 처방한다
- (3) 청심연자탕을 복용하고
  - ① 소화가 안되며 설사하고
  - ② 구역질나고
  - ③ 몸이 더워지고
  - ④ 목이 따가워지면 → 열다한소탕으로 처방한다
- (4) 청폐사간탕을 복용하고 설사가 나면 → 열다한소탕이나 청심연자탕으로 바꿔본다

× 본고는 사상체질의약학회 사상체질 경험례 수록집 1에서 전제한 것임

(경기도 광명시 광명4동 해동한약방 ☎ 02-681-4138)